

헝가리 집시족 선교보고 / 기도편지

2015년 10월 20일

박완주 박미영 선교사

1.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가 밀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아침 산책으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 어떤 노인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을 주워서 바다에 던져 놓으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뛰듯이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조금 있다가 해가 뜨겁게 비치면 모래 위에 남아있는 불가사리들이 죽기 때문에 바다에 던져 넣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보기에

그 노인이 하는 일은 가당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감님, 몇 마일이나 되는 이 모래 사장에는 지금 수 만, 수 십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중 몇 마리를 주워서 바다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불가사리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바다에 던져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제가 존경하는 윤영준 목사님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윤영준 박사 편저, 요단출판사간, 잊을 수 없는 경례, p.127).

로마니(집시)족은 500여년 전에 북인도에서 역사의 격랑에 밀리고 밀려 유럽까지 흘러들어온 종족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그들은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떼처럼 유럽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동유럽까지 와서 삽니다. 저희가 집시 선교의 베이스로 삼고 있는 헝가리 미쉬콜츠를 중심으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헝가리 국경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집시촌과 집시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집시족 중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무슨 보탬이 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전에 읽었던 이 예화가 자주 생각났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3개월 동안에는,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라고 했던 그 노인의 말이 얼마나 제 가슴 속에서 강하게 진동했는지 모릅니다.

2.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 I : 류코번녀의 두 아이

지난 번 기도편지에 류코번녀(Lyukobanya) 집시촌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썼었지요. 교회를 개척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류코번녀 교회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네 식구와 함께 방 한 칸 짜리 그 집에서 시작했던 류코번녀 교회는 여러



분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 덕분에 그 마을 문화회관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던 이쉬트반(Istvan)과 율리아(Julia) 부부의 집이 너무 비좁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문화회관의 작은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20명 남짓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의 사진은 지난 3개월 동안 류코번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슴을 뛰게 했던 두 아이들입니다. 눈이 맑고 참 이쁜 아이들이지요?

류코번녀 집시촌에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주였습니다. 한참 예배가 진행 중인데 이 두 아이가 예배처소인 이쉬트반 형제네 낡은 대문 밖에서 안을 기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설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아이를 향하여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두 아이는 들

어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손짓하며 어서 들어오라고 소리없이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결국 주춤거리며 내 곁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몰라도 저는 그 아이들이 그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던져주던 그 노인의 말처럼 말입니다.

류코번녀에는 2,000명 정도의 로마니(집시)족이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없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 중 매주 20여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겨우 2%이지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그 2%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날, 제가 열심히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아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며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바로 그 날, 그 문지방을 넘어와서 예배에 참석한 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 II : 페트라(Petra)와 리치(Rici)



헝가리에 와서 개척한 6개의 교회 중 그 첫 번째 교회는 라크(Lak)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500여명의 로마니(집시)족이 사는데 재작년에 예배당을 헌당하여 현재 100명에서 150명까지 꾸준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집시족 가정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을에도 최소한 200~300명의 집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페트라(Petra)는 라크 마을 아이들 중 유일하게 에델리니(Edelene)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교회 개척 첫 날부터 출석했는데 그 아이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페트라는 1남 3녀 중 둘째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뭐든 눈치껏 저희를 많이 돕습니다. 에델리니의 학교에 가려면 라크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차비도 들어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이 공부도 잘 해야 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꿈도 가져야 합니다. 부모도 그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계속 페트라와 그 가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엄마와 함께 면담을 하며 장래의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 가고는 싶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은 포기하고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시로서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갖는 아이는 참 드뭅니다. 특히 라크 마을과 같은 시골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트라에게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뭘 공부하고 싶냐고 했더니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시족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롤모델(role model,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집시이기 때문에 집시촌을 벗어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팍 박혀 있습니다. 저희는 페트라와 같은 아이들이 성공하여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페트라를 격려하며 공부 열심히 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면 꼭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던져주던 그 노인의 말 때문입니다.

사진은 페트라와 그의 엄마를 미쉬콜츠에 데리고 나와서 서점에서 책을 사 주고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대접했던 모습입니다. 페트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치(Rici)는 저희에게 헝가리어를 가르친 Panni 자매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Panni 자매의 엄마는 리치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저희도 그 교장선생님과 잘 압니다. 판니 자매는 엄마의 소개로 리치를 알게 되었답니다. 리치는 현재 미쉬콜츠 대학을 다니는 집시족입니다. 집시족 중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리치는 아빠의 얼굴도 모릅니다. 18세의 엄마가 18세의 아빠랑 사랑에 빠져 임신을 했답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빠는 바로 미쉬콜츠를 떠나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그 후 리치는 엄마의 언니인 이모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결국 미쉬콜츠 대학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판니 자매가 리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난 학기에 휴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려면 학비는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리치는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똑똑하고 성품도 좋은 형제인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니 자매와 함께 리치를 만났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만나보니 듣던대로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상담한 결과 꼭 대학을 졸업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쉬콜츠 집시촌에 있는 리치 형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형제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재 리치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매주 저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며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저희와 함께 집시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학기에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하여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그 노인의 말처럼 저희를 만난 이후로 리치 형제의 인생이 그 이전과 정말 큰 차이가 되어 집시족의 롤모델은 물론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Panni 자매의 소개로 맥도날드에서 리치 형제를 처음 만났던 장면과 그 후 페트라와 리치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하며 교제했던 날 찍었던 모습입니다.



4.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 III : 라치(Raci) 형제와 그의 딸

라치(Raci) 형제는 라크(Lak) 집시촌에 사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수 년 전에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혹시 개안수술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서 함께 안과 전문의를 만났더니 눈이 완전히 손상되어 평생 시력을 되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라치 형제는 늘 씩씩하고 밝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 했었는데 저희를

만난 후 주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음악적인 센스가 있어서 조그만한 봉고 드럼을 사줬더니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봉고를 두드리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저는 라치 형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덩달아 은혜 충만해져서 뜨겁게 찬양을 인도합니다.

라치 형제 부부에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 중 첫째는 딸 아이인데 아빠 곁에 꼭 붙어서 항상 아빠를 돕습니다. 공부도 잘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장차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페트라처럼 에델리니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도 가라고 격려합니다. 자기도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중고이긴 하지만 컴퓨터 세트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는 생사가 걸릴 정도로 큰 차이가 되지요!”

그 노인의 말처럼 평생 실명의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던 라치 형제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치 형제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라치 형제에게 봉고 드럼이 아닌 전자 드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반 드럼 세트는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집에서 연습할 수 없지만 전자 드럼은 가능합니다. 라치 형제는 연습만 하면 얼마든지 전자 드럼을 잘 칠 수 있습니다. 라치 형제에게 전자 드럼과 작은 앰프 세트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지난 주 예배 후에 라크 예배당에서 딸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5.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족하기만 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 (1)집시촌에 세워진 6개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 (2)개척한지 3개월 된 류코반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 (3)각 교회에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제자들이 되도록.
- (4)함께 동역하는 헝가리 목사님들(사무엘, 까로이, 안드라시)을 위하여.
- (5)10-10프로젝트(10개의 교회-10명의 지도자)가 성취되도록.
- (6)현재 추진 중인 Lak와 Boldva교회의 도서관을 위하여 - 특별히 책이 많이 채워지도록.
- (7)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과 자녀들(한울, 솔지)의 장래를 위하여.
- (8)저희가 소속된 미주 지엠피(GMP America)와 한국 침례교 해외선교회(FMB)를 위하여.
- (9)저희를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요즘 이곳은 2주 동안 가을 장마가 계속되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 추워지며 늦가을인듯 초겨울인듯 싶게 겨울이 닥칠 겁니다. 환절기에 늘 강건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평화 !!!